

정읍 월영습지·솔티숲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멸종위기종·733종 자생식물 보유 시, 2024년까지 73억원 투입 자연 그대로 이용 조성 모범사례

정읍시는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전국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솔티숲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 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원시숲이다.

월영습지는 솔티숲과 연결된 4개의 습지로 구성됐으며, 능선의 산골마을이 습지로 이어지는 형태다. 지난 2014년 환경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깃대종인 비단벌레와 진노랑상사화 등 멸종위기종과 733종의 자생식물이 자라는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지니고 있다.

정읍시는 이들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지역 개발과 조화할 수 있게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정읍시는 내장산생태탐방 마루길을 조각공원 인근에 내장호와 내장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풍경 조망 명소를 조성했다. 또 월영습지 탐방객의 접근성을 위해 자연탐방로를 개설했다. 지난해에는 솔티숲 생태체험장과 생태관광지 인근에 내장산생태탐방원을 만들었다.

정읍시는 내년까지 탐방객을 위한 방문자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한다. 센터가 완공되면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자연자원을 전시·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정읍시가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전국적인 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 사진은 솔티숲 생태체험. (정읍시 제공)

또 탐방객 생태체험과 마을 생태탐방 체험 등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 생태관광 공동체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양서류 생태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료를 구축하

고, 생태 가치와 보전 및 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들 지역의 공간 계획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생태관광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현명하게 이용되는 모범사례로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100년 역사 영상·음향 기록 남원다움관 내 '인생기록관' 구축

남원 100년의 역사를 수집해 영상·음향으로 소개하는 '인생기록관'이 구축된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인생기록관 구축 사업이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2020년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과제'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광한루원 인근에 있는 남원다움관 내에 인생기록관을 조성한다.

이 곳에는 남원 100년의 근·현대사 자료를 보관·수집한다. 남원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고향의 지역민들로부터 구술을 받아 영상·음향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디어아트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일방형 전시에서 벗어나 직접 기록을 남기고 이카이빙에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제작한다.

사업은 5월 시작에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장 뽑는다 고창군, 관련 시행규칙 마련

고창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마을 이장 선출을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고창군은 이장 교체 사유의 명확한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창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개정된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고창군 이장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먼저, 이장의 교체사유가 명확하게 명시됐다.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 기소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개입시, 각종 보조금 유용시, 총회 투표 과정서 불법행위 확실히, 이장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 등이 포함됐다.

이장 후보자 추천 제한기간 규정도 신설됐다. 여기에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시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새마을개발위원회의 명칭도 마을가꾸기 위원회로 변경됐다.

고창군은 이장 선출에 따른 잡음을 줄이기 위해 지난 1년간 읍면 이장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했다. 고창군 이장단연합회 월례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며 공감대를 얻었고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쳤다.

현재 고창군에는 총 564명의 이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빈집 정비한다 비주거용 창고·축사로 확대

이달말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정읍시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시 미관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주거용 빈집만 정비했던 것을 확대해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비주거용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 가운데 주거·공업·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정읍시는 최근 신청받은 빈집 정비 희망자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이 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250만원의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건물 250만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존 농촌 주택 빈집 정비에 집중이 된 지원범위를 비주거용까지 확대한다"며 "수년간 방치된 부속동과 폐창고 등 농촌지역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역 앞 중앙로 '철도 상징거리'로 조성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20억 확보

KTX 익산역 앞 중앙로가 철도 상징거리로 거듭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익산역 앞 중앙로를 철도 상징거리인 '빛들로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17년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익산역 앞 중앙로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철도 상징거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폭 25m인 중앙로에 철도 역사 도시를 상징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기원하는 보석기차, 기차 미니어저 등 조형물을 설치한다.

특히 보석기차 조형물은 유라시아 철도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염원하는 익산의 포부를 담는다. 야간에 익산역을 향해 쏘아지는 레이저는 보석기차에 보석을 가득 담고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밝은 익산을 표현한다. 이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철도 교통의 중심인 익산의 변화를 의미한다.

디자인 가로등 및 디자인 버스 정류장과 각종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청년층이 찾는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



익산시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조성하는 철도 특화거리 '빛들로' 조감도.

다. 중앙로의 오래된 은행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변경 식재하고, 인도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가미한 디자인랜치와 다양한 색깔을 내는 LED가로등으로 교체해 관광객들을 유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철도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시민의 염원인 유라시아 철도거점도시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